

일자리부터 복지까지 연계 삶에 숨통 틔운다

‘청년위기, 청년실업’ 등과 같은 청년 문제는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오래전부터 지리 잡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북의 청년은 한 해 1만5천 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고 있다. 정읍시의 청년 인구(18~39세)는 2022년 7월 말 기준 2만57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7%를 차지하지만 편중된 사업구조와 교육, 의료 등의 부족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그 어느 때보다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현실에 감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복지까지 연계한 탄탄하고 내실 있는 청년 정책을 마련해 청년들의 삶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각오다.



시청 아르바이트 참여 대학생과 간담회

▲주거 고민 없는 행복한 정읍... '청년 주거지원 대책 확대'

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거나,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 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소유자 또는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민선 8기 정읍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지원 4차 산업에 대비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전력을 다한다. 특히 청년과 기업 간 맞춤형 취업 중개와 관의 지역 취업 알선을 통한 일자리 체계화 등 구직자와 업체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취업 연결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취업 중개센터 인원을 확충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더 나은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와 지역대학이 한 팀이 돼 취업 연계형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학내고와 재일고, 칠보고 등 실업고를 대상으로 재향·제과, 전기, 용접 등 명장 육성사업을 추진해 지역 기업이 원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쁜 마음 쓰달쌔달' 우울한 청년 마음 보듬고 꿈과 희망 지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국내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놀랍게도 20~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읍시는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이 필요했거나 마음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어 고민이었던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지원사업'을 수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주거문제 해결 도모

4차산업 대비 맞춤형 전문인력 키움에 '전력' 취업 연결시스템 구축 박차

마음 건강 지원 수행 중 대상자 선정시 원하는 제공기관서 상담 서비스

상생 지원센터 창업 생태계 창업 성공 사례 이끌 마중물

청년 취업역량 향상



로컬방위대 활동



시기동 행복주택 준공



청년지원센터 개소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전북 상생 지원센터 본격 운영

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창업의 성공적 사례를 이끌 마중물로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청년발전기금(5개년 총 50억원)'을 재원으로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와 협약을 맺고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읍시 창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고 사업에 참여할 예비 청년 창업자와 청년 기업 개소를 모집하는 등 상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 모집된 입주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안전성이 우수한 60여 종류의 기술 목록 중 희망하는 기술을 선택하고, 지정 멘토에게 기술이전을 받게 된다. 또 창업 전선에 나서기 전 특허권자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비롯해 공동연구와 인력 개발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공동 연구시설과 연구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문화공간이름 기획 2022 전북문화관광재단 소극장 지원사업

이름오픈데이 '우리들의 버킷리스트'

8.17 (수) 이따구 8.19 (금) 남의 떡

8.18 (목) 뒤편작렬

CONCERT

너네 이런 콘서트 봤어?

이충훈 아나운서 4인 선정 받습니다! 당첨 시 선물증정!

7:30 PM 문화공간이름 ART SPACE

본 공연은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2년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